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1주차 문학 수업용 해설]

[이승모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①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면 됩니다.
- ②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③ 현대시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1주차] 문학 수업 지문

연습 훈련 1. 꽃밭의 독백 - 사소 단장(2009학년도 9월 모평)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③ 다만, 의미 단위로 끊어서 차분히 읽는다. 연 구분이 있으면 연의 의미 단위이고, 연 구분이 없으면 문장이 의미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 ④ 시는 정서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 ⑤ 반복되면 중요하다.
- ⑥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 접근법

[지문 해설]

설명에 앞서 일단 이 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임을 밝혀둔다. 이 시를 처음 봤을 때, 나는 큰 감동을 받았고, 실제로 대학교 가서 이 시를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로 아직도 좋아한다. 이 시를 읽어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

[원주(原註)]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지문 해설]

스스로 생각해보자. 이 시를 읽고 감동 받았던 내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까? 이 시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나? 만약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이 시의 내용이 이해되었다면, 이 시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작가인 경우일 것이다. 우리는 시험에 이런 시가 나오면 아무리 애써도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동 받았던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를 이상하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다. 우리는 수능 때 우리가 알지 모르는 시를 해석할 수 없다. 물론 해석할 필요도 없다. 다만 차분히 읽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면 좋다.

노래가 낮기는 그중 나아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 멧어 버렸다.

----- 끊어 읽기
활로 잡은 산돼지, 매(鷹)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 끊어 읽기
꽃아.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반복)

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낫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상황 암시)

----- 끊어 읽기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반복)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아. 문 열어라 꽃아.(반복)

----- 끊어 읽기

[원주(原註)] 사소 : 사소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처녀로 잉태하여, 산으로 신선수행(神仙修行)을 간 일이 있는데, 이 글은 그 떠나기 전 그의 집 꽃밭에서의 독백.

-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

국어 영역

[지문 해설]

일단 위치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다. 일단 의미 단위로 끊어가며 차분히 읽자. 연 구분이 없으므로 문장 단위로 끊어가며 읽어 내려가면 된다. 이 중,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부분에서 '꽃'이 반복되었기에 체크를 해둔 것뿐이고, '나는 네 달한 문에 다가섰을 뿐이다.'의 경우, 문학적 감이 있으면 뭔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읽어 내려가는 부분이 될 거다. 다만 상황을 잘 보여주기에 우선 체크해둔 것일 뿐 반드시 보여야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네 번째 부분은 확실히 처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 열여라 꽃'이 네 번이나 반복되었다.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이 와중에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의 경우, 우리가 내신 때 그래도 공부했다면 벼락, 해일 = 시련, 고난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역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써 먹는 것일 뿐이다. 그럼 이런 뜻이 된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 좀 열여달라는 애긴데, 이걸 네 번 반복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열여달라는 걸까.

내가 말하는 것은 간절함까지 파악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렇게 끊어가며 차분히 읽고, 이 와중에 반복되는 것들은 체크해 놓고 가서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문을 열여달라고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으니 사실은 화자가 되게 간절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때 그래서 나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내가 고3 때 이 시를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1.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가)를 썼다고 할 때, 창작 과정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경주 선도산(仙桃山)에 신모(神母)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소'라 했다. 일찍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멀리 바다 건너 서쪽 나라로부터 해동(海東)으로 들어왔다. 술개가 날아가 내리는 곳에 집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서 선도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 사소가 처음 삼한 땅에 이르러 자식을 낳으니, 그가 동국(東國)의 첫 왕이 되었다. 무릇 혁거세와 알영의 유래를 말하는 것이리라.

-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 ② <보기>에 없는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
- ③ '꽃'은 지적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보기> 밖에서 가져온 소재야.
- ④ <보기>와 달리 '사소'가 '처녀로 잉태'했다고 한 것은 '사소'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설정이야.
- ⑤ <보기>를 근거로 원주를 붙인 데에는 원주를 참조하여 시를 이해하기 바라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어.

연습 훈련 1번 문제 : ②

발문에 밑줄 치자. '시인이 <보기>의 옛 기록을 바탕으로 윗글을 썼다고 할 때'. 밑줄 긋는다.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지문은 시이고, <보기>는 설화이다. 즉 시간 상 설화가 먼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인이 시를 쓴 것일 거다. 다시 말해 '<보기>의 설화 → 지문의 시의 순서인 셈이며, 이것은 결국 <보기>와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된다. 쉽게 말해 <보기>에 있는 내용인데 지문에 없는 것이나, <보기>에 없는데 지문에 새로 생긴 것 등을 묻는다는 거다. 다시 말해 지문과 <보기>를 비교하는 문제는 대놓고 <보기>에 새로운 작품을 놓고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재구성하거나,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각색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적절' / '적절하지 않은'부터 확인한다.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이므로 우리는 틀린 것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을 기억하자. <보기>와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이면 틀려도 지문이 틀린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지문이 틀리므로 우리는 선택지를 다 판단할 필요 없이 지문 틀린 것이나 하나 찾으면 된다. 생각해봐라. 선택지에서 지문 진실이 맞고 <보기> 진실이 틀린다면, 이것은 좋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보기>만 읽고도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지문 기준으로 가부를 판단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①	O	위에 제시한 방법대로 한 번 움직여보자. ① '사소'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새롭게 해석했군. 생각해보자. 이 선택지가 적절하려면, <보기>에는 내적 갈등이 희미해야 하고, 지문에는 내적 갈등이 부각되어 있어야 한다.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보기>에는 내적 갈등이 없고, 지문에만 내적 갈등이 있으면 적절하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풀 때 <보기>의 진실은 굳이 먼저 따질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지문에 내적 갈등이 있는지만 따지면 된다. '내적 갈등'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문학에서 내적 갈등이 맞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① 고민될 때 ② 등장인물이나 화자가 힘들면 맞다. 즉 이 시의 화자는 시련과 고난만이 길일지라도 문을 열여달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화자는 지금 힘들다. 따라서 지문에는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다. 적절하다.
②	X (정답)	<보기>에 노래와 구름 같은 시어가 진짜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통 ②를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학생은 선택지를 보고 '문 열여라 꽃'이 생각나서 혹시 문 건너에 고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해석하는 학생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제를 풀 때, 특히 선택지를 보고 현대시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선택지는 이미 출제자가 해석을 해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은 이미 해석한 것을 2차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더 멀어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관계로 따진다.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심정'이 이 시에 있나? 우선 '노래'와 '구름' 즉 1행에서 4행을 돌아가서 앞뒤를 읽어본다. 어디에도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는 사소의 모습은 없다. 또 이 시 전체 역시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가 아니다. 즉 감으로 선택지 판단이 안 되면 굳이 애써서 해석하지 말고 지금처럼 지문의 일부분을 돌아가서 읽어보거나, 시 전체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된다. 이런 것을 사실 관계라고 한다.

국어 영역

[1주차] 문학 수업 지문

연습 훈련 2. 강 건너간 노래(2018학년도 수능)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① 현대시는 해석할 수 없다. 해석할 필요도 없고, 해석하지도 않는다.
- ② 선택지를 보고 판단할 때에도 해석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③ 시는 경서다. 경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표시해주면 좋다.
- ④ 반복되면 중요하다.

[중요] '수능'에서 현대시 선택지의 판단

정답 : 사실관계로 해석이 없어도 판단 가능

오답 :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문 해설]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미션을 줄 테니 이렇게 한 번 해보자. 많은 학생들이 답은 같 고를 것이다. 다만 모든 선택지를 맞으면 O, 틀리면 X, 헛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로 판단해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알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나)

시 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 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 [A] 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A]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
- ④ ㉣: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O / X / △)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O / X / △)

[지문 해설]

답은 다 골랐을 거다. 선택지 판단 다 끝나면, 일단 지문부터 어떻게 처리할 지 생각해보자. 이 시는 분명 최근 수능에 나온 작품이다. 혹시 이 시가 이해가 되는가? 해석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시가 해석이 된다면, 이 시를 알고 있거나 작가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연 구분하면서 차분히 읽고 판단이나 할 거다. 해석은 하지 않는다. 다만 밑에 제시된 대로 해주면 그냥 좋다. 어쨌든 차분히만 읽는다.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알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제목)

----- 끊어 읽기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반복)

----- 끊어 읽기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전혀 알 수 없음)

----- 끊어 읽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정서 : 슬픔)

----- 끊어 읽기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뎀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반복)

----- 끊어 읽기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국어 영역

연습 훈련 2번 문제 : ④

내가 ①~⑥까지 모두 판단해 보라고 한 것은, 이 느낌을 기억하길 바라서이다. 생각해보자. 정답 선택지인 ④를 고를 때와 ①, ②, ③, ⑤를 고르는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④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굳이 애써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선택지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가부 판단이 가능하다. 즉 수능 때에도 그렇다는 거다. 현대시 정답 선택지는 '사실 관계로 명확하게 풀리게끔 출제가 된다. 그러나 오답 선택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애써거나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도 출제가 된다. 즉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가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도 △를 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선 정답 선택지를 해설하고, 오답 선택지를 모두 O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다.

④ ㉞: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앞뒤 둘 다 틀렸다. 명확하게 틀렸다. 이 시에는 화자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희망적으로 바뀐 것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사실 관계로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

① ㉞: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여, /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

①은 대개 많은 학생들이 그냥 O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육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다. 즉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 시대 사람이다. 이것만 알면 사실 ①은 O가 될 수 있다. '밤은 시간적 배경이 맞고, 그 와중에 이 시의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는 것만 알면 자연스럽게 '밤' = 시련, 고난,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된다. 즉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육사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①을 맞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㉞: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O / X / △)

②는 문학적 감이 좋거나,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푸는 학생이라면 O를 할 수 있으나, 보통은 △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이것을 완전히 O를 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한다. '사막'은 생명력이 없는 공간, 즉 당시의 시대를 고려한다면 일제 강점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한 것은 맞다. 문제는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시의 2연을 차분히 읽어보면 사실 화자의 노래는 아직 사막에 닿지 않았다.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면하게 '떨'이라고 선택지가 출제가 된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②를 명확하게 O를 하려면 이 시가 언제 만들어진 것이며, '사막'의 상징적 의미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시를 차분히 읽고 이해해야 한다. 물어본다. 이렇게 다 따져서 O 할래? 아니면 그냥 △하고 판단 보류할래? 나 같으면 수능 때 후자로 할 것 같다.

③ ㉞: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 화자에게 닥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O / X / △)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이다.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노래가)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치치면
㉞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상황을 생각해보자. 화자는 현재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래를 부르면서 계집애를 떠올린 것이다. 즉 정리하면, 계집애 → 집 없음 → 연민 → 화자가 노래를 보내 줌 → 노래 전달 안 됨 → 절망감 이거 읽고, ③ 보면 그냥 끄덕끄덕 하게 될 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답 선택지는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답 선택지는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판단을 잘하면 한다.

[조금 더 자세한 전체 선택지 해설]

연습 훈련 2번 문제 : ④

①	O	사실 이 선택지는 웬만한 학생들은 거의 다 O를 한다. 그 이유를 면밀히 따져보면, 결국 우리가 이육사가 독립운동가인지 알고, 그가 살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이라는 표현에서 극한의 추위가 나타나는 시간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밤' = '일제 강점기'라고 이미 내재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이 나타난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
②	O	실전에서 △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민하게 보면 왜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떨' 공간적 배경이냐는 것일 텐데. 차분하게 2연을 읽어보자.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 내 노래는 제비 같이 날아서 갔소.'로 볼 때, 노래는 가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 완전히 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육사가 일제 강점기 때의 사람임을 알고 있기에 '사막'이 생명력이 없는 공간을 뜻하므로 일제 강점기의 공간적 배경으로 보아도 무방하고(실전에서 이렇게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O를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노래가 그곳으로 갈 것이므로 '직면하게 떨' 공간적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③	O	해석을 요구하는 선택지다. 따라서 '감'으로 풀면 맞다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명확히 모르면 △를 치고 넘어가면 된다. 이 선택지를 O를 완벽하게 치고 싶다면 3연을 어느 정도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실전에서 3연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할 리 없기에 '감'으로 O를 치거나 아니라면 △치고 일단 내려가라는 거다. 화자는 현재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 노래를 부르면서 딱 두 가지를 떠올리고 있는데 3연의 계집애와 5연의 옛일이다.(우리도 가끔 밤에 흥얼거리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때가 있지.) 계집애가 집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시에서 이런 상황이면 화자는 계집애를 '연민'할 것이다. 연민하기에 노래를 불러준 것이고, 다만 이 노래는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 떨어져 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노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이 해설을 읽고 ③을 읽어봐라. 누구라도 O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리 없다. 관점만 명확히 하자. 정답 선택지는 사실 관계로 나온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X (정답)	정답 선택지는 사실관계로 떨어진다. 꼭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 것이, ①, ②, ③, ⑤ 선택지를 판단할 때와 ④를 판단할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⑤를 정확히 판단할 때에는 무엇을 미리 알거나 해석해야 하지만, ④는 그냥 답이 딱 떨어진다. ㉞에서 '떨'이라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조상 오는 밤'은 무언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상황이 부정적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뀐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⑤	O	일단 당위적 진실이라는 말 때문에 △를 친 학생은, [A]를 너무 가볍게 읽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A]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면 바로 해결이 될 것 같고, 이것 역시 어떤 학생들에게는 O이

국어 영역

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가 될 수 있는 선택지다. 헷갈리면 판단을 보류하고 △나 치면 된다. 그러나 굳이 명확하게 설명해보면 ③의 해설과 연결된다. 화자는 밤에 노래를 부르면서 옛일을 떠올린다. 이 옛일이 '일제 강점기 전' 즉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이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를 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미리 알 수도 없고,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 감으로 판단이 되면 ○를 치고 판단이 안 되면 △를 치고 넘어가는 것이다. 다행히 정답 선지인 ④번 선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④번 선지를 골라 놓고도 ⑤번 선지를 지우지 못해서 고민했던 학생들은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있었을 수 있다. 문학 선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는 오답 선지 중에는 △ 선지가 있을 수 있다. 즉 판단이 보류되는 선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정답 선지는 언제나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시된다는 것. 그러니 근거를 찾고 정답 선지를 골랐다면, 지워지지 않는 오답 선지가 있다고 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